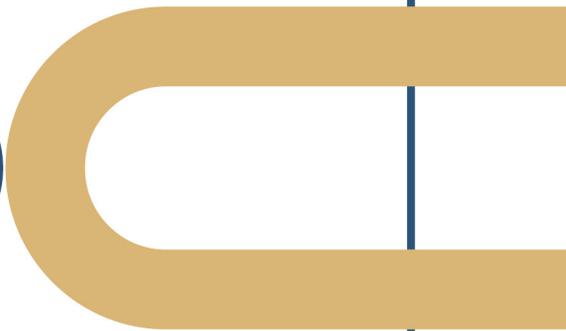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2021-2022년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는 육아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 총 57개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기관 제도, 가정 양육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건강 등 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2022년에는 저출생 시대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신·출산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9개 제안서 중 9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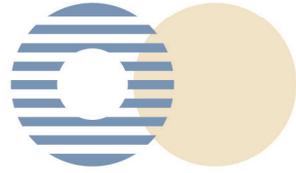
올 초에 발표된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 집중하여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년간 연구소에서 추진한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CONTENTS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개요

06

최우수상



08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우수상



12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팔찌)' 지원 사업

16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장려상



32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 근무제도

36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39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42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45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48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개요

52

최우수상



54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우수상



58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61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장려상



66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69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72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76 모유 수유 지원 정책
80 ‘양육은 산모의 쉼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개요

■ 목적

정책수요자(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가진 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개발 실효성 제고

■ 주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

■ 대상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가진 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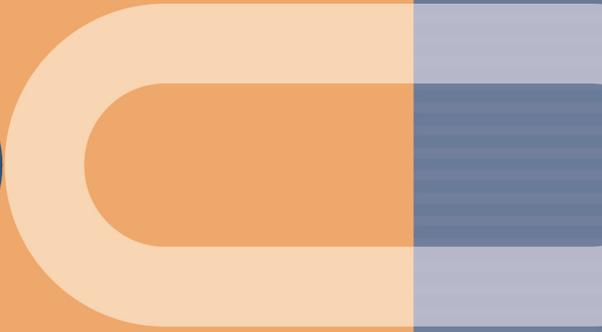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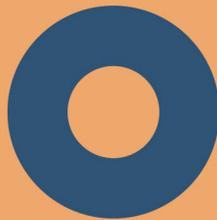
■ 수상내역

구분	제 목
최우수상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우수상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팔찌)' 지원 사업
우수상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장려상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 근무제도
장려상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장려상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장려상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장려상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장려상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최우수상

★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최우수상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건강 프로젝트)



정책영역 | 건강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취업 여성은 물론 전업 주부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이 늘어나고 육아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계속되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양육자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가정의 경우 부모의 삶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나아가서는 아동 학대나 통제 등 부정적인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어린이집은 재원중인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4)를 진행하였고, 10월에 있을 2학기 학부모 상담 진행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능력감(유능감)과, 사회적지지 정도(고립)가 위험 수준으로 나온 양육자가 대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주기적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시기 별 아동의 과업과 발달 단계 이해, 개별 아동의 특성 이해하기 등 부모 유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으로부터 지지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교자 계획하였다.
 - 이 과정에서 양육자 본인이 우울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검사 이후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의 보호자

■ 사업의 지원 내용

-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플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소견을 듣고 결과 통보서를 발부받는다. 영유아가 발달시기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질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 부모 됨이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임신과 출생 이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기회의 부재와 이로 인한 자녀 돌보기의 어려움은 육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육아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이와 같이 두 집단의 건강검진이 모두 중요함에도 우리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의 힘듦이나 양육스트레스에는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이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볼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접근성과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부모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울과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 하였으나,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거나, 선뜻 먼저 찾아가기 어려웠던 부모 또한 마음 건강의 상황을 진단받고 살펴 볼 수 있다.
 - 이에 본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부모의 건강한 심리, 정서 상태의 중요성을 느끼며 본 사업을 제안한다.
-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에 따른 수준별 대책을 지원한다.
 - 1단계(매우 좋음) / 2단계(좋음) / 3단계(경계) / 4단계(위험) / 5단계(매우 위험)
 - 3단계(경계)결과를 받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각 관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가 입회하에 부모자조모임(ZOOM)를 지원한다.
(각 구별, 자녀의 연령 별로 소모임을 구성하며 육아 전문가가 그 시기 영유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해 함께 논한다. 또한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부모 교육의 참여를 권장 할 수 있다.)
 - 4단계(위험)~5단계(매우 위험)결과를 받은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심리상담(ZOOM)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와 1:1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이후에도 사후 활동으로 여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중인 '행복한 부모 되기',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 등의 교육과 함께 진행 할 수 있다.)

■ 사업의 차별성

- 각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전화, ZOOM을 통하여 비대면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관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이 기존 다양한 사업들과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의 기대 효과

- 정신건강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
 -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들끼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통한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이 과열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다.
 -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펴봄에 육아 스트레스 완화와 행복한 부모 됨을 경험 할 수 있다.
 - 육아스트레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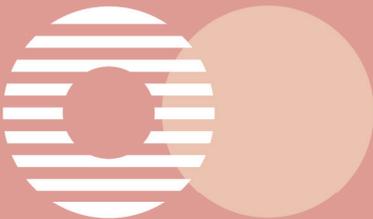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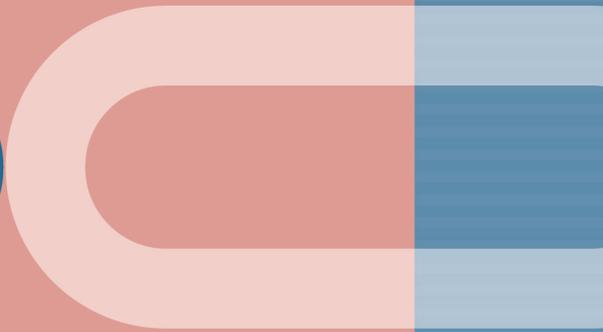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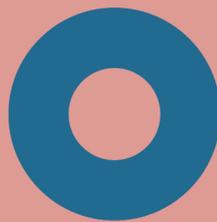
■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녀의 영유아검진 안내시기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함께 안내하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육스트레스 3단계 결과를 받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ZOOM) 지원 및 다양한 부모교육의 참여 권장
- 심리상담 지원센터
 - 양육스트레스 4,5단계 결과를 받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심리상담(ZOOM) 서비스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안전팔찌)' 지원 사업**

★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우수상

(유치원·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안전팔찌)’ 지원 사업



정책영역 | 유아교육·보육 취약계층 지원

▣ 사업의 제안 배경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중 실종사고의 신고접수는 2만여 건으로 유지되는 상황
 - 최근 5년간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아동 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실종 장애인 중 장애아의 인원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예측됨.
 -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종건수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은 아동비율에 비하여 실종비율이 최소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신고접수인원(미발견 인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월
18세 미만아동	19,870(3)	19,956(3)	21,980(6)	21,551(9)	19,146(36)	6,068(60)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8,542(5)	8,525(4)	8,881(8)	8,360(22)	7,078(20)	2,207(27)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04.).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통계표. 경찰청 내부행정자료 참조.

- 만 2세 이하의 영아 및 만 5세 이하의 장애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대상의 높은 실종 가능성
 - 상황파악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영아는 보호자가 높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종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많은 인원의 영아를 돌보아야 하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는 특히 영아 실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의사표현과 전달이 어려운 장애아,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아의 경우 기관 밖을 배회하거나 야외활동 시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실종사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실종예방 정책 적용 필요
 - 다중이용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내에서 여러 명의 원아를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바깥놀이, 견학, 외부행사 등의 활동 시 실종 관련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더욱이 장애아 혹은 어린 연령대의 영아의 경우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많음.

사업의 지원 대상

-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실종 취약계층 대상아동
 - 만 2세 이하의 영아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 (혹은 장애아가 속한 반의 아동 전체)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대상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 팔찌' 지원
 - 지원 우선순위: 장애아가 다수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급)', 영아가 배치된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이유: 의사표현이 불명확한 영아와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되, 가능하다면 장애아가 포함된 전체 학급의 비장애아 아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를 제안 함. (집단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명찰, 이름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기대)
- 디지털 뉴딜을 반영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 팔찌'의 ICT 기능
 - 경찰청의 안전관리 앱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되, 기술적·비용 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중요도가 반영된 아래의 순번대로 기능하기를 제안함.
 - 1) 안전사정거리를 벗어날 때 알람 경보 기능 : 비콘방식의 영유아 동선 감지시스템을 적용
 - 2) 위치추적 장치 탑재 : 어플을 활용하여 필요시 위치확인을 가능하도록 함.
 - 3) 아동정보관리 기능 : 연동된 앱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며, 실종사고 발생 시 경찰서로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 도입. 반대로 기관 외부에서 실종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서 팔찌의 NFC 태그 확인을 통해 기관/가정으로 무사귀가 조치할 수 있음.

사업의 차별성

- 경찰청의 사전 지문 등록 시 실종예방 안전팔찌활용에 관한 정보동의를 함께 받음.
 - 보호자에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 팔찌 활용 시 아동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 동의를 받음으로써 “지문등록 보호” + “안전 팔찌 보호”를 연계하여 가정과 기관에서 촘촘한 아동보호망을 만들 수 있음.
- 기존의 위치추적 팔찌에서 알람 추가기능을 탑재하여 다기능 요소를 고려
 -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팔찌, 목걸이 등이 기존에 개발되었으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지는 않았음. 바깥놀이, 견학활동, 외부행사를 할 때 아이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하여 설정해둔 활동반경을 벗어날 때 알람이 울리는 기능을 함께 탑재하여 기존의 외부활동용 이름표나 명찰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의 기대 효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약계층 아동의 실종예방
 - 아동인원수에 비해 적은 교사인원수에 따른 아동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견학, 바깥놀이, 행사 등 외부활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미아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킴.
 - 장애아동 배회사건, 영아 실종사건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교육·보육환경 조성이 가능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신뢰감 향상
 -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감 상승의 기회가 됨.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가아동보호체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
- 아동 실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축소(정익중 외, 2009)
 - 실종아동이 원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보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아동의 문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비 역시 사회적인 손실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실종아동가족 대상 131사례의 설문결과에서 직접비용(교통비, 숙박비, 의료비, 홍보비 등) 이외에도 간접비용(시간비용, 잠재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됨.

시행기관

- 사업은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
 - 주관기관(경찰청): 주관기관으로는 아동의 실종아동의 신고, 접수, 조회, 전산입력,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실종아동 수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아동청소년과)을 제안하며, 필요시 협력부처로는 실종 및 유괴 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이 있음.
 - 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 지자체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적용을 위해 지자체 내의 교육청 및 시군구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 사업의 큰 틀은 경찰청에서 계획을 하되, 시행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의 인원, 이용시설 등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함.

다(多) 행복 희망 정책 제안



정책영역 |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사업의 제안 배경

-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의 전문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염지숙·고영미, 2014, 류영희, 2021). 보육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언어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의 물리적 환경, 제도적 여건, 교사의 자질과 태도, 교육에 목표달성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부모의 의견반영, 부모와의 협력관계, 적극적인 부모참여 역시 중요하다(이순임, 2014, 류영희, 2021).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은 보육과정, 운영관리, 물리적 환경,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평가,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모든 측면의 활동수준이 법인 어린이집이나 혹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영희 2021).
-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정부는 '보육공공성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2017.4.1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는 핵심 선거공약으로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듭 재확인한 바 있는 중요 국정과제이다.11) 각종 언론이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40% 달성목표가 '국공립시설의 비율'인지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인지 혼재되어 있었지만,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는 한발 후퇴하여 '이용율'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공립시설 확충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해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7a).
- 최근 3년간 총 27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 개설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은

69개소(25.0%), 리모델링 46개소(16.7%), 민간 매입 129개소(46.7%), 대체. 이전에 해당하는 기타 32개소(11.6%)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 민간매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신축, 리모델링, 기타 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매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정호진, 2020). 민간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히 많은 민간 어린이집의 시장과의 균형 맞추기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 이처럼 정부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간 기존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격차는 극명화된 사실이다.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육 서비스 질의 핵심인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안현미 외, 2016, 최이수, 2020).

▣ 사업의 지원 대상

- 부모
 - 보육서비스 질, 부담 경비 수준, 직원 역량, 성실성, 다툼 경험, 열린 어린이집 운영은 학부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설립 주체별 학부모 만족도는 국공립·직장보육시설이 타 유형에 비해 높다.
 - 학부모 만족도는 보육서비스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 질은 보육활동의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즉 보육활동의 수준이 높을 수록 보육서비스의 질,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 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학부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 국공립 전환원장들은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력교사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교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최이수, 2020). 따라서 보육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원장의 보육 교직원 관리 및 전문성 향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공립 전환 후 보육 교직원의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이후 전문성을 한순간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최이수, 2020). 보육 교직원의 질 제고 방안 정책은 원장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가 인정된다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낮은 이직 의도를 나타내어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진경미, 2017). 직급별 급여체계 도입은 교육교사의 근무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
-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의 경력은 단순한 시간적 축적이 아니다. 경력이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닌 정신적 공간이며, 동시에 교사의 수행을 좌우하는 물질적 힘의 자원이 된다. 고경력 교사들의 채용, 반 배치에 영향을 주는 유아, 영아반별 인건비 지원을 동일화함으로써 고경력자들이 장인적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교직의 숙련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의 질 제고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영아(80%)반, 유아(30%)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은 기관, 영·유아 보육교직원 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2020년 기준 35,35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 보육교직원 325,669명 중 59,974명, 영·유아 1,244,396명 중 253,251명).
 - 보육교사 고용 시 3호봉 이상 경력교사 채용을 꺼려하고 전체 보육교사 중 35.3%만이 경력과 호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원, 2015).
 - 경력이란 시간의 길이만이 아닌 정신적 공간이며, 동시에 교사의 수행을 좌우하는 물질적 힘의 자원이 됨. 경력은 전문성인 동시에 숙련성이다.
 - 현재 영아반 80%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고경력, 고 호봉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 및 갖고 있는 역량과 상관없이 영아반에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 영아반, 유아반으로 나누어진 교직원 지원금 비율을 영아반, 유아반 모두 60% 지원으로 지원금 변경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 현재 지원금에 따른 정부지원금과 어린이집 부담금 |

호봉	담임배치	월 정부지원금	월 어린이집 부담
5호봉	영아반	1,676,640	419,160
	유아반	628,740	1,467,060
15호봉	영아반	2,129,600	532,400
	유아반	798,600	1,863,400

- 5호봉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5,029,920원
- 5호봉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7,604,720원
- 15호봉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6,388,800원
- 15호봉 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22,360,800원
- 영아반 배치 시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1,358,880원
- 유아반 배치 시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4,756,080원

-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는 100% 수익자 부담 및 지출이 되므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수익은 보육료가 유일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고경력자는 영아반으로 주로 배치되는 구조가 된다.

| 60% 동일하게 지원했을 때의 정부지원금과 어린이집 부담금 |

호봉	담임배치	월 정부지원금	월 어린이집 부담
5호봉	영아반	1,257,480	838,320
	유아반		
15호봉	영아반	1,597,200	1,064,800
	유아반		

- 5호봉 교사의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0,059,840원
- 15호봉 교사의 어린이집의 연간 부담금액: 12,777,600원
- 저경력자와 고경력자의 연간 부담금액 차이: 2,717,760원
- * 기존의 지원대로 5호봉을 유아반, 15호봉을 영아반에 배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연간 부담금액: 23,993,520원
60% 지원으로 교사 배치를 자유롭게 할 경우 어린이집 연간 부담금액: 22,837,440원

- 기존 지원 %와 60%지원을 받았을 때 어린이집 연간 부담 금액은 1,156,080원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경력과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 보육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반 배치가 가능하여 어린이집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단,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 기존의 80% 지원을 유지한다.

만1세 반의 보육료 수익: 426,000원×5명=2,130,000원

만5세 반의 보육료 수익: 260,000원×18명=4,680,000원

유아반의 월 보육료는 낮으나 보육 인원으로 인해 월간 보육료 수익이 영아반에 비해 45.5% 많음.

- 따라서, 보육료 수익구조에 따라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의 80%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담임교사(정교사), 오후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더 많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책임의 경중함과 같은 업무도 다양한 상황이지만 현재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3가지 업무로 나뉘어진 단순한 호봉 체계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표를 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교사와 2~3년제 대학 졸업한 교사,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따른 차이가 없이 신입 교사의 경우 똑같이 1호봉으로 호봉체계를 적용한다.

- 한편, 유치원교사 호봉 계산방법은 교육공무원 호봉계산 방법과 동일함. 경력환산율표 적용, 학력 및 경력연수 가감, 가상호봉 적용 3단계로 호봉이 결정된다.

확정호봉 = 환산 경력연수+(총수학연수-16)+가산연수(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1년을 준다)+가산호봉(정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8, 정교사 1급 가산호봉 적용 9)

예1)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8(\text{정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7$

예2) 4년제 유아교육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 교사
 $0+(16-16)+1(\text{가산연수 1 적용})+8(\text{정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 9$

- 보육교사들이 처한 직무환경인 근무조건과 처우에 만족을 느낄 때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영·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와 보육시설 근무 환경과의 관계 분석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양승희, 염순교, 2007, 이연승, 최진령, 2013).

-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체계와 같은 학력별, 급수별, 직책별, 직위별 보육교직원 호봉체계를 제안한다.

예1)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2-16)+0+5(\text{보육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1$

예2) 3년제 보육관련학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6(\text{정교사 2급 가산호봉 적용}) = 5$

예2) 3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5-16)+0+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7$$

예3) 4년제 보육관련학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6-16)+0+6(\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6$$

예4)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을 통한 2급 보육교사 자격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사

$$0+(16-16)+1+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9$$

예5)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5년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력교사

$$5+(16-16)+1+8(\text{정교사 2급 기산호봉 적용}) = 14$$

예6)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10년 보육교사 1급 및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경력교사

$$10+(16-16)+1+9(\text{정교사 1급 기산호봉 적용}) = 20$$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직무에 불만족하는 1순위 이유는 경력이 쌓여도 임금 인상이 없어서 (29.5%), 업무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아서(18.9%)였다. 경력이 쌓여도 임금인상이 없어서 문항의 경우, 누리 보조교사(31.3%), 일반보조교사 1순위(28.6%), 대체교사(54.5%)가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업무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서 문항의 경우, 보육도우미 (33.3%), 부담임교사(37.5%)가 1순위로 응답하였다(박창현, 김상림, 2018).

- 따라서 오후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누리 보조교사에 대한 경력별 호봉표도 마련 되어야 하며 오후 연장반 교사의 경우 보조 및 누리교사와 다르게 담임의 역할을 하는 점,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호봉	보조 및 누리교사	오후연장반 교사
1	1,011,000	1,111,000
2	1,020,908	1,121,888
3	1,030,816	1,230,766
...
...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력과 자격급수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호봉체계에 반영하여 학력에 의한 보육 교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동기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체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임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무중심의 보육교사 인턴제도 교육과정 도입 방안

- 초임교사는 셸렘 보다는 이론과 실재가 다른 보육 현실에 대한 충격, 두려움,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함. 이들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 부담스러운 역할 기대, 새로운 환경 적응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초임교사의 경험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박지현, 2021).
- 초임교사는 학생에서 교사라는 자아의 직책과 역할이 급변하는 시기임. 때문에 불안한 자아와 더불어 스트레스가 지속으로 자신에 대한 죄책감, 불신, 자존감 저하의 부정적 감정을 초래한다(박지현, 2021).
- 따라서 첫 교직 경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나 연수원, 양성소는 이론과 실재가 적절하게 융합된 교육과정 제시가 필요함. 또한 실제 보육 기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보육 실무중심의 교육 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박지현, 2021).
- 이에 따라 초임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무중심의 보육교사 인턴제도 교육과정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 실무중심 보육교사 인턴제 교육과정 시기: 보육교사 자격취득 직전
- 인턴제 실시 기간: 3개월
- 교육과정 내용: 영유아 보육 및 보육일지 작성법 외의 실무 업무, 관찰기록 작성법, 각 영역별 주요 서류 파악,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여 영역별 서류 작성하기, 교실관리, 학부모 상담 참관 및 상담일지 작성, 부모교육 계획 및 참관, 행사계획 및 행사 참여 등의 교육과정 내용을 인턴제 교육과정 내에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으로 지정함.

-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사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마련
 - 보육교사는 전문가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동학대 예비 범죄자'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 이로 인해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함.
 - 전문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직장인이라고 하기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고 있는 현실임.
 - 보육 소비자들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사실 여부를 떠나 아동 학대교사, 교사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글들을 작성하여 보육 교사에게 심적 고통을 주고 있음.

- 관련기사: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맘카페 마녀사냥으로 극단적 선택/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4>
- “딱밤 학대 의심” 맘카페 글로 어린이집 원장 숨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59231&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 교육공무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음.
- 보육교사도 「보육 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보육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보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사항을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도 반영 및 법제화할 수 있음.

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글쓰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실효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감을 수행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보육 교직원을 근로자의 관점이 아닌 교육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오후 연장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직무 재정립-개편된 보육 지원체계에 따른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명확히 업무를 배분하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정부 인건비 지원 요건(영아반 30시간/월, 영아반 80시간/월)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연장 보육 전담교사의 인건비가 중단되어 근로 보장이 불안정함. 이러한 인건비 지원 요건은 고용불안을 초래함.
- 담임 교사의 경우에도 채용 원아 기준(0세반 최소 2명 이상, 1세반 최소 3명 이상, 2세반 최소 4명이상, 3세반 최소 8명 이상, 4세반 이상 최소 11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인건비를 지원함.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근무 교사는 고용불안을 느낌.

-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이용시간, 재원 원아 기준이 아닌 업무별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을 때 무조건 지원이 되어야 함.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원장에게 쏠린 과도한 안전 관리의 책임 완화
 -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함.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육아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은 안전임.
 - 매년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업무 및 안전교육관련 법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시설관리 부분은 여성 보육 교직원이 대부분인 어린이집 특성상 안전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함.
 -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및 안전 관련 책무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어린이집 놀이시설관리,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노후시설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석면안전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나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숙지하여 관리하기에는 시설·설비 및 안전 관련 전문지식 부족의 한계, 과도한 업무환경,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방염, 설치기준 등 세심한 검사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시설보수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이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을 총괄하는 원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교육과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도 꼭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인증받은 보수업체를 선정해 엄격하게 관리 및 점검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 총괄 기관」지정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함.
 1. 소방 및 화재 안전 거점 관리기관 선정
 2. 차량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소 지정 및 출장 서비스
 3. 어린이집 가스안전 및 전기안전을 위한 관리사 지정
 4. 건축물 개·보수 및 놀이터 시설점검
 5. 석면, 미세먼지 등 관리
 - 위와 같이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을 관리해 줄 총괄 기관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어린이집 어느 곳이든 안전한 시설임이 확인된다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의

- 예방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어린이집을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지원이 꼭 필요함. 이를 통해 원장은 어린이집에 부과된 과도한 안전의 책무 완화되며 자신의 전문분야인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및 지원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규 및 변경 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아보육법」제25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유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보건복지부, 2021)).
 -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기본반 기준임)이 지정대상임.
 - 통합시설 지정절차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함.
 - 이러한 지정절차를 정리하면
 - 1) 장애아 보육을 위해 장애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어야 지정대상이 됨.
 - 3)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야 함.
 - 4) 위의 요건을 갖춘 후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제출함.
 - 5) 서류 및 시설 검토 이후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결정됨.
 - 6) 지정 이후에 인건비가 지원됨.
 - 위의 절차대로 하면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를 모집하고 교사를 채용한 후에 지정이 됨. 이럴 경우 문제점은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아 전담교사 없이 장애아를 모집한다는 것은 일반 교사에게 업무의 과중을 줄 수 있음. 그렇다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100%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불가능함.

- 따라서 지정절차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희망할 경우
 - 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신청서 제출
 - 2) 장애아 보육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현장 심사
 - 3) 시설 기준을 충족하였을 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4) 장애아통합보육을 위한 장애아 모집 및 장애아 전담교사 채용의 순서로 변경되어야 함.

- 장애 영·유아의 장애 정도 혹은 장애 유형 등에 고려 없이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를 가진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음.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교수 방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의 영·유아들이 동일한 반에 속해 있을 때 보육의 초점을 어느 장애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교사의 어려움이 큼 (강경숙, 2012).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기준에 있어 기존의 교사 대 장애아 비율을 1:3으로 하는 것은 통합보육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모두 긍정적인 장애통합 보육의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와 비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장애 급수별 교사지원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상시 11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저소득층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어린이집'이라고 칭하며 지역의 주민 자녀를 50% 이상 보육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
 - 그러나 농촌 영유아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보육 아동들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준비 기간이 길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이 가능한 대규모 민간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농촌 보육 아동들의 보육시설 접근을 저해하는 것임(김태현, 2015).
 - 저출산의 문제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각 연령별 보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영아 통합반, 유아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채용하는 영유아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함.

▣ 사업의 차별성

■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의 질 제고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영아(80%)반, 유아(30%)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
 - 기존 지원률 적용과 60% 변경 지원하였을 때 금액적 차이를 세세하게 비교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으로 현재 지원률과 지원금액 및 어린이집 부담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적절한 지원률(60%)을 찾아 냄으로써 현장에 빠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담임교사(정교사), 오후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 보조교사, 오후연장반 교사가 모인 교사학습 공동체 Y.E.S.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함. 비록 가치로운 연구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책과 직급이 섞여있는 공동체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였음.
 -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치원 호봉표 적용 방법을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직급별 호봉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육교사 호봉별 상승률을 적용하여 제안하였음.
 - 오후 연장반 교사의 담임의 역할, 보육일지 작성의 역할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였음.
-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함.
 - 보육교직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찾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원장에게 쏠린 과도한 안전 관리의 책임 완화
 - 원장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이 아닌 안전 전문가가 아닌 원장에게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소방관리자, 도시가스관리자, 엘리베이터 관리자 등의 자격증을 취득

하게 하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함. 이에 따라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

-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및 지원 정책 제안
 -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에 맞는 지정 방법을 제안함.
 -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시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급수별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함. 그동안 장애아동 지원에 있어서 유형별, 급수별 사항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지적함.
-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 제안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저출산 농어촌 지역 국공립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및 학부모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100% 인건비 지원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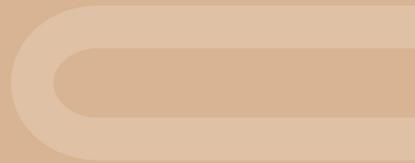
▣ 사업의 기대 효과

- 어린이집 확충 정책 시행에 따른 보육의 질 제고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영아(80%)반, 유아(30%)반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
 - 인건비 지원률의 동일화로 그동안 반 배정에 있어 경력과 호봉이 가장 고려되었는데 지원률이 동일하게 되면 원장은 교직원의 역량과 성향, 전문성, 아동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교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음. 교사는 자신에게 맞는 반을 배정받아 교실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교사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담임교사(정교사), 오후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 자격 급수별, 학력별, 직책별 호봉제도를 도입하여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급수, 수학 연수, 직책에 따른 호봉의 차이로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느낄 수 있고 향후 급여 향상을 위해 관련 공부를 하며 교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보육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침.
-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만 늘 '을'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높지 않음.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교직원의 자존감, 사명감을 높일 수 있음.
-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은 다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에게 정부가 보육교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장에게 쏠린 과도한 안전 관리의 책임 완화
 - 안전 전문가, 안전 전문 업체에 어린이집 안전을 위탁하며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순서 변경 및 지원 정책제안
 -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근처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없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장애 유형별, 급수별 지원체계 적용으로 보다 질 좋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 제안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학부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함.
 - 저출산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의 처우가 개선됨.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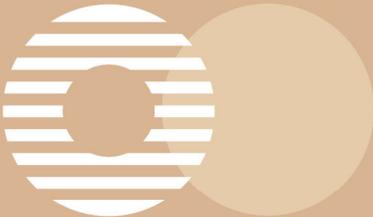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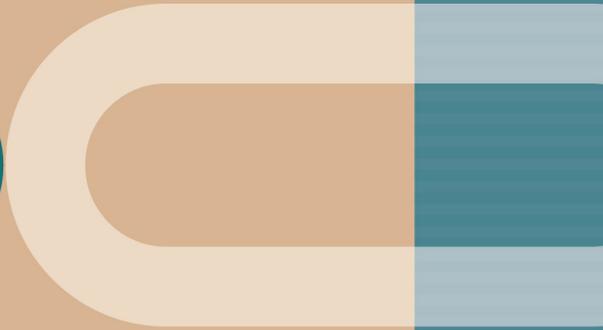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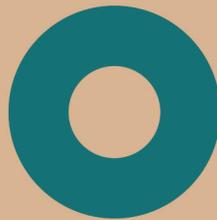
2021년
정책제안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 ★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 근무제도**
- ★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 ★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 ★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 ★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장려상

1교실 2담임, 업무분장에 따른 주별 순환 근무제도



정책영역 | 유아교육·보육 교사지원

시행기관

-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률, 직급별 호봉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함.
-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은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의회 통과를 거쳐 법제처에 등록함.
-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보육교사인권보호센터(가칭)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농어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 원장의 안전관리 책임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및 위탁 공공기관이 수행함.

사업의 제안 배경

- 교사의 근무환경개선
 -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중 서류 및 활동 준비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이 필요함.
 - 활동을 위한 수업준비, 활동을 마친 후의 평가와 가정 연계 및 피드백 (아동 관찰일지, 보육 일지, 알림장, 상담일지 등), 교실 청소 및 위생 점검은 교사의 고유 업무임. 근무시간 내에 이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절 시간을 보장해야 함.

- 현재 교사의 업무시간은 “9~16시 보육활동, 16~17시 하원지도, 17~18시 서류, 수업준비, 청소”로 교사의 야근을 부추기며, 낮잠시간 중 휴게는 실효성이 낮음.
- 업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나 서류 간소화가 주장되지만 이는 한계가 있음. 어찌되었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8시간(휴게시간 포함)이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업무를 1시간에 해야 하기에 구조적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충실한 보육시간 보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 보육시간에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여 온전히 아이들과의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동발달과 아동학대예방에 도움이 됨.
 - 보조교사로는 한계가 있기에 담임교사를 통해 책임감 있는 보육활동을 보장해야 함.

■ 사업의 지원 대상

- 보육 교사
 - 적절한 업무시간 분배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교사들이 가장 힘들다는 점심식사 시간과 낮잠시간 초반(12시~14시)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대비 1/2로 줄어들며, 아동관련 서류 업무 역시 1/2로 줄어듦.
 - 교사 합의 후, 연차 사용 시에는 주 보육시간이 오후일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교사 업무인수 인계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
- 영유아
 -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심식사 시간과 낮잠시간 초반(12시~14시)에 두 명의 담임교사와 함께함으로써 순간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져 돌봄을 받는 퀄리티가 높아짐.
- 어린이집
 - 주 보육시간이 오후 시에만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으로 합의 후, 대체교사를 12시~17시 30분 채용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보조교사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 내용

- 1교실 2담임 주별 순환근무제 정책화
 - 교사의 업무시간을 2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법적·구조적으로 정책화
 - 1st 교사의 업무시간 : 9시~14시 보육활동, 14시~15시 점심 및 휴게, 15시~17시 수업 준비 및 서류 업무, 17시~18시 회의, 당직근무 및 청소
 - 2nd 교사의 업무시간 : 9시~11시 수업 준비 및 서류 업무, 11시~12시 점심 및 휴게, 12시~17시 보육활동, 17시~18시 회의, 당직근무 및 청소
- 담임교사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보조교사는 교실 운영의 결정권과 책임에 한계가 있기에 교사의 업무를 낮춰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보조교사를 증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담임교사를 증대하는 쪽으로의 정책 선회가 필요함.
 - 보조교사 지원을 줄이더라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의 차별성

- 탄력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
 - 만1세를 예로 현행 1:5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9시~12시, 14시~17시는 동일함.
 - 12시~14시 사이는 2:5가 되어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심시간과 낮잠을 재우는 시간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대비 1/2 됨.
- 충분한 수업준비를 통한 충실한 교육 및 보육 활동 실행
 - 수업준비는 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재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에 틈을 내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이 제도를 통해 낮잠을 빨리 재우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거나 보육시간에 아이를 살피지 않아 아동 부상 등이 발생하는 현행 구조를 고칠 수 있음.
- 교사 근무환경 개선

- 교사가 실제로 서류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실제로 쉴 수 있는 휴게 시간을 보장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현행 보육업무시간 규정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거나 서류를 간소화하는 정책들이 교사의 업무강도를 일정부분 낮춰주는 하겠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휴게 시간이나 서류 업무시간, 청소시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음.
- 1교실 2담임 주별 순환근무제도를 시행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1:5는 하루 3시간이므로 충분히 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교사 근무환경 개선
 - 교사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근무를 개선하고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
 - 통계적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발생시간에 담임교사 수를 늘림으로써 아동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운영의 질(quality) 향상
 - 책임감 있는 교사들의 학급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기대함.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며 법적으로 담임교사를 추가 채용하여 한 교실 2담임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장반을 만들며 교사 업무시간을 공시했듯이 담임교사의 2가지 업무분장과 실행시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함.
-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시행해야 함.

장려상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정책영역 | 건강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현대사회 영유아들이 앓고 있는 환경 관련 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에 초점을 둔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공
 - 최근 환경 관련 질환(아토피 및 천식, 새집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고충과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한 질환 완화와 자연 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접목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책
 -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과밀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해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린이집 또한 감소하는 원아수와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있다. 따라서 자연치유형 어린이집에 대한 needs가 있는 도시 거주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를 유인하고자 함.

사업의 지원 대상

- 환경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가 필요한 영유아
 -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각종 환경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증상의 개선을 요하는 영유아.
 - 농어촌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과 쉼이 필요한 영유아

- 환경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영유아 환경질환 증상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학부모
 - 각종 도시 거주 문제로 인해 자녀들과 시골 살이 계획하고 있는 가정

■ 사업의 지원 내용

- 환경질환 안심 급 간식 제공 어린이집
 - 환경질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영양사가 제공하는 ‘건강 식단’ 제공
 - 급 간식 제공 시 친환경 소재, 자연식 식자재 사용
 - 급 간식 제공 시 무 첨가물, 무 조미료로 조리한 음식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자연환경 제공 어린이집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천연소재 놀이 환경 및 놀잇감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자연환경(등산로, 황토길, 자연 체험장 등) 제공
-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정서 치유형 프로그램 제공
 - 환경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완화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 부모참여 치유형 프로그램 제공
 - 환경질환 치유 관련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이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 환경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로 인한 고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개별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인근 주거 정보 제공 등 정착 지원
 -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하여 성공적 농어촌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농업정보제공 등

사업의 차별성

- 환경질환의 완화와 자연치유를 의료영역이 아닌 보육영역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급 간식은 일반영유아 대상으로, 환경질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급 간식 제공으로 기존 일반 급간식과 차별화
 -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 놀이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되, 환경질환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도울 수 있는 별도 치유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
 - 일반적인 보육실과 놀이터가 제공되는 보육환경이 아닌 환경질환 완화와 자연치유를 도울 수 있는 소재와 환경으로 구성된 보육환경과 자연환경 제공의 차별화

사업의 기대 효과

- 현대 사회의 영유아 환경질환 문제 해결을 의료영역이 아닌 보육(생활)영역에서 도움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영유아의 환경질환 완화와 부모님의 양육에 대한 고충을 덜어줌.
- 저출산 문제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과 어린이집 원아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보육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예방
 - 농어촌 지역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도시나 농어촌지역이나 공평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 나아가 농어촌 지역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발전에 따른 활성화를 도움.
 - 농어촌 지역에 영유아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지역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도움.
 - 귀농귀촌 및 정착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인구유입효과 기대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지자체(보육담당 실과, 귀농귀촌센터, 취업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 지자체 보건소 및 환경질환 전문병원
- 관내 한의원 및 자연치유전문가 등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수립



정책영역 | 유아교육·보육 제도 개선

사업의 제안 배경

- 사업의 제안 배경
 - 보육 사업에 관련된 법률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자 및 지자체 공무원(순환근무)들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
 -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안전사고 및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보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분쟁(아동학대, 안전사고 및 노무 관련 분쟁)의 해결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보육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으로 영유아 및 부모, 교직원의 안녕을 추구
 - 어린이집 지도감독 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 증진

■ 사업의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원장 포함 보육교직원(2020년 12월말 기준 325,669명)
 - 보육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직원 간, 운영자와 교직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음.
- 어린이집 지도감독 기관
 - 상시 체계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 내용

- 보육 관련 법률과 아동학대 관련 판례 등을 총괄하여 정비함.
 - 보육 관련 이해 당사자 누구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보육분야 특화된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단을 구성함.
 - 전화 또는 이메일,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법률 자문이 가능함.

■ 사업의 차별성

- 보육 사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이 전무함.
 - 어린이집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법률 지원이 절실함.
-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할 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보육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강함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노무, 안전사고, 아동학대 사건 판례 등)을 총괄하여 정비하는 것임.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법률 자문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수 있음.
- 기존 보육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는 단순하고 형식적임.

▣ 사업의 기대 효과

- 사회적 비용 감소
 - 공적인 영역에서 명확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정한 법률자문시스템을 통해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 이에 보육교직원은 운영과 보육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영유아 및 부모에게 돌아감.
- 분쟁 발생을 최소화
 - 법률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의 증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기본 체제 구축
- 전국에 분포해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구체적인 자문단 구성 및 실행

장려상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만족도 평가 도입



정책영역 | 초등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저는 맞벌이 직장인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하게 되어 초등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딸이 초등돌봄을 이용할 때 불편하였던 것은 돌봄을 이용할 때 어떻게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소통창구 또는 특이 사항 시 교사의 연락이 있었으나 초등돌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 학교생활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알 수가 없었으며 현재 학교종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학교생활 등으로 알 수는 있지만 초등돌봄에 대한 자세한 시스템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 무척 아쉬웠습니다.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학년말 학교의 교직원등 이용 만족도 평가는 있으나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는 없었습니다.
 - 저희는 큰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초등돌봄을 이용 할 수 없었지만 1학년 입학한 동생의 입학식 날 초등돌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돌봄 선생님이 1학년 입학하는 저희 자녀에게 여름방학 때는 3학년 누나가 있으니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초3학년 누나가 보호자가 되어 방학 때 동생을 돌보라는 것인지... 누나가 돌봄을 이용할 때 제가 일찍 퇴근하여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에도 충격이었는데... 정말 교사로서 부모님들에게도 요구하는

모습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을 이용하면서 늘 가기 싫다고 하며 선생님 무섭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으로 아동과 학부모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 넘겨도 되는 것인지... 저희는 그해 여름은 정말 아이들끼리 가정에 있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아이들도 불안 속에서 그 이후 방학은 아이들끼리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맘 편히 이용하는 돌봄 이여야 하는데 교사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마냥 불쌍하였습니다. 현재는 초등5학년인 자녀이지만 현재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
 - 학교 종일시스템 안에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별도의 시스템 창이 필요함.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아동
 - 맞벌이 부모로 인해 아동이 수업이 끝나고 돌봄을 이용하는데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시스템을 이용이 필요함.

사업의 지원 내용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현재 학교별 학교종일등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초등돌봄의 창구를 별도로 구축 또는 별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생활의 50%이상 또는 방학 때는 종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활동을 온라인시스템을 학부모가 전달 받고 교사와 긴급 시 연락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함.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아동이 돌봄을 이용하면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맘 편히 이용하였으면 하고 이용자 인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사항 등을 매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초등돌봄서비스로 발전해 나아가갈 것 있음.
 - 그러므로 돌봄교사의 업무적 평가가 필요하며 교사는 자신의 업무평가가 이루어짐을 인식 하고 아동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지지와 안정된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게 될 것임.

■ 사업의 차별성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초등돌봄에 대해 구체적이 시스템 도입이 없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초등교직원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돌봄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아동과 학부모님의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나은 초등돌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사업의 기대 효과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로 돌봄시스템의 질적 개선 충족

■ 시행기관

-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구축
 - 교육청,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온라인 시스템 업체
- 초등돌봄 시스템의 만족도 평가 도입
 - 교육청,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온라인시스템 업체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정책영역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관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사례가 많아 저서인지 19년~21년 사이 가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유독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년 10월에 발생한 양모에 의해 학대받던 중 숨진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사업의 지원 대상

-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 수당의 지원(단, 경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 노인 복지관
 - 실버 인력뱅크 사업을 통해 양육수당 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 지킴이' 어르신의 급여 지원
- 지역 육아 종합지원 센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앱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의 지원 내용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어르신 도우미 채용
 - 양육 수당 지급 전 1개월 1회씩 어르신 도우미를 채용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의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신청 자격 부여
 - 양육하는 자녀 안전 미확인 시 그 달의 양육 수당 신청 자격 상실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어르신의 경우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 교육 실시 후 양육수당 신청 가정으로 파견
- 양육 수당 신청 앱 만들기
 - 양육 수당을 앱으로 신청하게 하고 신청 전 부모 스스로 '아동학대 발생 징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자신들의 아동학대 위험도를 자가 측정하도록 한다.
 - 양육수당 신청 조건을 만들어 연간 상·하반기 1회씩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다.
 - 아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앱을 운영하게 하고 부모 상담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치료 연계

■ 사업의 차별성

-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 예방 절차를 만들어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부모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어르신 봉사자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차별화 된다.
 - 양육수당 신청 앱을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체크리스트로 자가 측정하고 부모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점
- 양육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임.

사업의 기대 효과

-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양육수당과 연결하여 아동학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지킴이가 방문하여 아이의 안전을 직접 확인
 - 양육수당을 앱으로 신청하면서 신청 전 과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하여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하고, 년 2회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음.
 -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을 지정하여 심층 관리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부모상담, 자녀의 문제 행동지도 등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 제시
- 가정별 아동학대 예방관리 실시 및 자료 축적
 - 양육수당 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나 또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가정별 아동학대 예방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의무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을 양육수당 신청 자격조건에 포함시켜 양육수당을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받도록 한다. 기관에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사유를 파악하고 지자체별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

시행기관

-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사업-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안전 지킴이 교육 및 관리 실시
- 양육수당 앱-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과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신청에 대한 관리 진행

장려상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



정책영역 | 건강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독일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면 선물꾸러미를 준다고 한다.
 -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도록 동화책을 선물한다.
 - 기타 물컵, 바디로션 등을 함께 선물한다.



-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 월평균 독서량은 미국 6.6, 일본 6.1, 프랑스 5.9, 독일, 영국, 중국 2.6, 대한민국 0.8 순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독서량은 이보다 더 감소 추세이다. 다양한 영상이나 콘텐츠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없는 살림에 도둑맞은 듯 한 느낌이다.

-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이다.

| 우리나라 연간 성인 1인당 독서량 변화 |

(종이책 기준)

연도	2015	2017	2019
일반성인	9.1	8.3	6.1
독서자기준	14	13.8	11.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국민독서실태조사)

종이책 기준으로 현재 월평균 0.5권인 셈이다. 오디오북, 전자책을 포함해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독서 장애요인으로 과거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가 1위였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는 다른 콘텐츠로 대체해서 소비한다는 항목이 1위로 조사됐다.

요즘 다양한 영상과 각종 콘텐츠들이 넘쳐나지만 언론과 영상에 너무 매몰되면 위태로워진다.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알고리즘이나 편향된 언론에 대중들은 통제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획일화되고 사고력, 창의성은 사라진다.

노벨상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척도 중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도 1명 밖에 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 현황을 국가별로 확인해 보면 선진국이자 독서량이 높은 나라가 확연히 많다.

[출처] 우리나라 연간 성인 독서량 변화작성작자 힌스틸.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다.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크는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화한다.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한다.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건강검진 시 각 시기별 연령대에 맞는 책을 선물한다.
 - 책 첫 페이지에 아이의 이름을 적은 응원글을 남긴다.

예: 주경이가 몸도 건강하게 자라고 지식도 건강하게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문자, 카톡, 이메일로 검진 기관에 보내오면 사진을 인화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추가 선물 증정).

▣ 사업의 차별성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고 떨리는 경험이다.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 8번의 영유아 검진 때마다 책을 선물 받게 되면 책이 정말 특별하다는 감정을 받게 되고 평생 간직하게 된다.
 - 어릴 때 받은 감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읽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 사업의 기대 효과

- 영유아 검진 때 받은 책은 특별한 날 받은 책으로 평생 추억이 된다.
 -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읽게 된다.
 - 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 반복적인 책 선물은 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많지만 꼭 짚어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 검진 때 게시판에 걸려있는 책을 선물 받고 좋아하는 어린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한 어린이는 평생 책을 가까이하게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하면 더 삭막해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가끔 내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차가운 인공지능 기계, 로봇들 사이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안타깝다. 그리고 미래에는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히 예측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시대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힘, 창의성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힘과 경쟁력을 키워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그나마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타국에 억압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힘을 느끼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우리나라 연간 성인 독서량 변화|작성자 힌스틸.

시행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대상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개요

■ 목적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임신·출산 정책 신규 발굴

■ 주제

저출생시대에 임신·출산(임신·출산 취약지역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사회사업 제안

■ 대상

임신·출산 신규정책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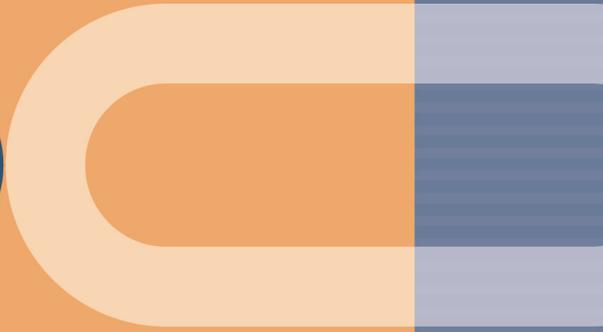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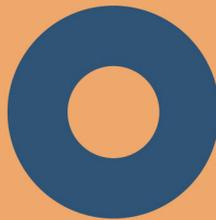
■ 수상내역

구분	제목
최우수상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우수상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우수상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장려상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장려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장려상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장려상	모유 수유 지원 정책
장려상	'양육은 산모의 쉼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최우수상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최우수상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한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됨.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은 수유실이나 유아 휴게실을 찾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 공공기관이나 여가시설, 식당 등에도 수유실이나 유아 휴게실이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사회활동이 제한됨.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을 설치하여도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사, 휴게소 등은 의무적으로 임신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짐.
 - 최근 지역축제나 식당 등에도 유아휴게실이나 임신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이 되지 않음.
 - 수유시설 검색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나(<https://sooyusil.com/>)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검색되지 않거나 최신화가 되지 않아 폐쇄된 시설까지 검색됨.

■ 사업의 지원 대상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가 편리한 사회참여와 소비 생활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와 가족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와 그 가족이 편리한 사회참여와 소비 생활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장 및 공공기관
 - 수유실, 유아휴게실 등을 설치하였으나 홍보가 되지 않았던 영업장과 공공기관이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수유실, 유아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제로 홍보효과를 갖게 된다면 수유실, 유아휴게실 설치를 확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 내용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설치 현황 및 구비 물품 정보 수집
 - 현재 수유시설 검색을 할 경우 산발적으로 검색이 되거나 수유시설 검색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도 아با이용 가능 여부 정도만 제공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용자가 수유시설 및 유아 휴게실 설치 여부와 냉·난방시설, 세면대, 기저귀 갈이대 등 설치 여부 등을 등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함.
- 부모 및 임산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또는 웹사이트 개발
 -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 중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산부 등록시 홍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존의 사용자가 많은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구글 지도 등의 앱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사후관리
 -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유도
 - 사후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앱 또는 웹사이트 운영

▣ 사업의 차별성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와 둘째 이상의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음.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와 둘째 이상의 임산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재래 시장이나 지역 상권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지역 축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아휴게실 및 수유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유아휴게실의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음.
 - 산발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합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서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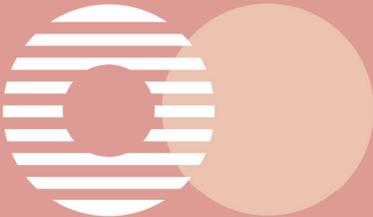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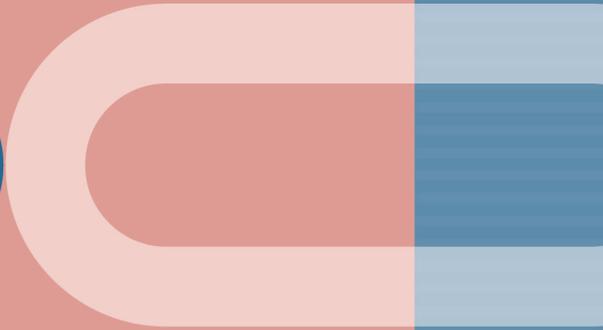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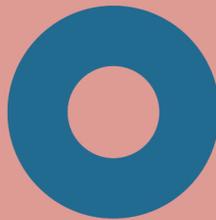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 있음.
 -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
 - 영·유아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음.
 -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바우처와 아동수당 등이 쇼핑이 편리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수유실과 유아 휴게실을 설치한 영업장 및 인근 상가에서 소비가 가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며,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기존 지도 앱을 개발한 민간기업과 협력이 가능함.



- ★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 ★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우수상

웰컴키즈존 (Welcome Kids Zone)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노키즈존 증가 및 찬성 여론 확산
 -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증가하고 있음.
 -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1인 가구 및 무자녀 부부 등 영유아 양육과는 거리가 먼 가족구성 형태가 증가하면서 노키즈존 활성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출산 기피 및 비혼 확산 현상 우려
 -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는 무자녀 부부 및 미혼남녀에게 출산 이후 자신도 출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저출산 및 비혼문화 확산 현상이 우려됨.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의 외부활동(문화공간, 음식점, 카페 등) 제한
 - 노키즈존 증가 및 활성화 찬성 여론 증가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외부활동 전에 방문지에 전화하여 영유아가 출입이 가능한 곳인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노키즈존은 아니나 영유아 이용이 드문 공간에서는 가족이 눈치를 보며 이용하고 있음.

▶ 사업의 지원 대상

- 웰컴키즈존 사업장(음식점 및 문화 공간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
- 웰컴키즈존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족

▶ 사업의 지원 내용

- 어플 또는 홈페이지 운영
 - 웰컴키즈존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 및 홈페이지 운영
 - 영유아 가족은 웰컴키즈존 사업장을 어플 및 홈페이지로 손쉽게 확인 가능
 - 웰컴키즈존 사업장은 사업장의 홍보 가능
- 명패(간판) 제작 지원
 - 입장 전 웰컴키즈존 공간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웰컴키즈존 공간에 대한 이용 홍보를 도움
- 영유아가 이용하는 물품(의자 및 음료컵, 식판 등) 지원
- 영유아 가족을 위한 화장실 및 수유실 설치 시 기저귀 갈이대, 영유아 변기, 발판 등 일부 지원
 - ※ 지원 기준 : 사업장에서의 웰컴키즈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를 위한 음식/음료 메뉴가 1개 이상 있을 것
 -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 업데이트 등 영유아 안전을 위한 안내문 부착 및 관리

▶ 사업의 차별성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웰컴키즈존 및 케어키즈존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입장이 가능할 뿐 대부분이 영유아를 위한 환경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웰컴키즈존 활성화

-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웰컴키즈존 활성화
- 웰컴키즈존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의 외부활동 증가
 -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가게 및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어 용이
 - 눈치보지 않고 문화공간,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 가능
-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출산율 증가
 - 웰컴키즈존 활성화로 출산에 대해 긍정적 인식 확산
 -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외부생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완화

시행기관

- 자치구 출산 또는 영유아 관련 부서에서 관리
 -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이므로 관리 용이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관리 가능(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시 담당 직원 인건비, 차량 제공하여 상시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지원, 육아 전문 기관이므로 사업장에서의 영유아 공간 및 메뉴 등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지원 가능)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현시대는 축소가족 형태이므로 젊은 층의 결혼 성 상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함.
 - 대상자들이 원할 때 즉시 궁금증이나 응급상황의 해결이 필요함.
 - 전문적인 지식과 출산의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대상자들의 need를 충족할 수 있음.
- 출산 취약지역에 조산사의 인프라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 교육과 분만이 필요함.
 - 대한조산협회 산하 각 지회의 인프라를 통해서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교육과 분만을 시행
 - 지속적인 산후 및 영유아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음.
-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병원을 다니는 대상자라도 응급 시 친정 부모마음처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전문 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이 한가족, 사회 국가의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 취약지역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지가 되고 있지 않음.

사업의 지원 대상

- 가임기 여성과 남성, 부부의 상담

- 가임기여성과 남성의 올바른 가정생활의 성상담
- 임신을 앞둔 부부 대상으로 출산 전 건강과 영양상담
- 임신, 출산, 산욕, 영아를 가진 대상자
- 출산 후 가족계획으로 여성의 건강한 life지원
- 출산 취약 가정
 - 임신 전 상담
 - 임신 중 산전관리
 - 출산을 수행(산후오로 출혈, 자궁수축등등)
 - 산후관리 및 영유아(체중, 영양, 목욕, 예방접종등) 관리
 - 모유수유지도를 통한 건강한 관리

▣ 사업의 지원 내용

- 전화상담 및 온라인 통한 상담
 - 대한조산협회나 전국 각 지회 전화, 홈페이지, 각지부 조산원의 전화,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
- 직접상담
 - 대한조산협회나 서울조산협회, 각지회 사무실을 이용한 대상자의 need상담
- 전문적인 조산사의 인력활용한 교육과 출산지원(감염된 임산부 격리 출산 가능)
 - 가정 출산지원
 - 방문을 통한 산후 및 모유, 영유아 관리 가능

▣ 사업의 차별성

- 전문적인 조산사의 24시간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직접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
 - 조산사는 간호가 면허 취득 후 1년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수료 후 국가 시험을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는 전문 인력이므로 저출산 시대에 대상자들을 위한 훌륭한 인력으로 일반 의료인과는 차별화됨.

- 현재 조산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료인들이므로 이 일의 적합성과 접근성이 효과적임.
- 현재는 보건소에서의 방문 간호나 가정사업센터에서의 방문간호사업은 조산사보다는 저출산 시대에 대상자들을 간호하는 전문성이 떨어짐.
 - 조산사는 현재 이일들을 수행하고있고 이일을 시행하는 대상자들로 부터의 만족도가 높다.

▶ 사업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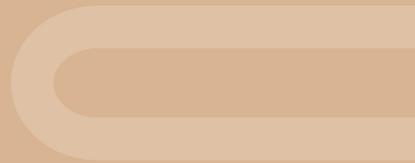
- 대상자들이 필요 시에 언제든지 상담과 교육이 가능
 - 대한조산협회 산하 8개의 각 지회에서 이일을 수행하기 가능하므로 전국적이므로 인프라 폭이 넓다.
- 조산사를 활용한 임신,출산, 산육, 영유아 관리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

▶ 시행기관

- 대한조산협회산하 각 지회(서울조산협회, 각지회, 개업 조산원등)
 - 단 이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조산협회와 MOU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하면 이일을 수행 하기에 효과적임.
 - 이일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 조산원들의 비상망을 세워야함.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정책제안공모전
수상작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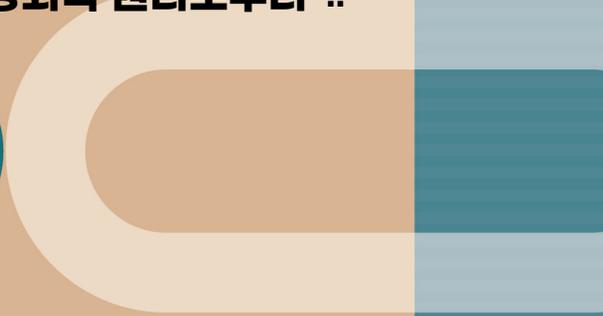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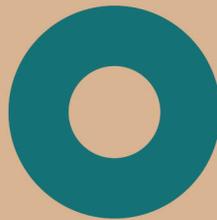
★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 모유 수유 지원 정책

★ ‘양육은 산모의 실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장려상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산전 후 1개월은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로 집중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간임.
 - (초산) 출산 전 후 급격한 체력 소진과 함께 특히 영양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
 - (둘째 이상 산모) 출산 후에도 다른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체력적 부담이 커 다양한 사회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

사업의 지원 대상

- 직접적 지원대상: 산전 후 1개월 이내 모든 임신부 및 산모
- 간접적 지원대상: 산전 후 1개월 임신부 및 산모의 가족 구성원

사업의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1개월 임신부 및 산모 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 현재, 임신부 대상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이 운영 중으로 임신부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이를 확장 지원하기 위해 출산 전후 가장 체력적 소모가 큰 시기인 출산 전후 1개월 내에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도가 높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완제품 반찬을 1주/2주 /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직접적 배달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내에 시장 안 소상공인 반찬 가게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서, 정책 예산을 합리화 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구체화가 가능함.
-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다른 자녀 돌봄 지원사업
 -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돌보미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신생아 돌봄과 산모돌봄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그러나, 둘째 이상 산모에게는 본인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부담도 크지만, 기출산 자녀를 위한 절대적인 돌봄시간, 심리적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생아 돌봄 뿐 아니라, 기 출산 자녀에 대한 1) 가정내 돌봄,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돌봄 서비스, 3) 놀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사업의 차별성

- (임신기간 집중 지원의 차별성) 임신 10개월 기간이 모두 중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나 특히 출산 전후 1개월은 임신부 및 산모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과 변화, 체력적 소진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긴요함.
 - 특히, 임신부 및 산모는 식자재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도 직접 조리까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 반찬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영양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체력적 소모가 가장 큰 시기에 다른 자녀 돌봄 서비스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둘째 이상 임신부 및 산모 대상 집중 지원의 차별성) 임신 및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체적, 심리적 변화 상황으로서 둘째 이상 임신부 및 산모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감이 극대화 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자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이에 대한 심리적,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출산 전후 1개월 임신부 및 산모 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 식자재 지원 만으로는 체력적, 심리적 부담으로 직접 조리를 할 수 없는 산모 및 임신부에게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산모 영양 회복 뿐 아니라, 신생아 돌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다른 자녀 돌봄 지원사업
 - 우리 나라의 재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초산의 경험을 통해 높은 체력적 소모와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자녀 돌봄 공백등이 주요 원인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둘째 이상의 임산부 및 산모에게 다른 자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 하고 장기적으로 재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시행기관

- 산모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 정부부처: 전반적 정책 지원 방향 홍보, 정책 지원 예산 편성
 - 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정책 지원의 긍정적 효과 홍보 및 연구
 - 지방자치단체 및 동주민센터: 사업의 직접적 지원
 - 민관기관: 지역사회 내 시장 반찬가게 등 민관과의 지원 체계 연계를 통해, 사회적 상생 민간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다른 자녀 돌봄 지원사업
 - 정부부처: 전반적 정책 지원 방향 홍보, 정책 지원 예산 편성
 - 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정책 지원의 긍정적 효과 홍보 및 연구
 - 지방자치단체 및 동주민센터: 사업의 직접적 지원, 공공근로자 선발, 지원, 연계를 통해
 - 산모 및 임산부 지원 및 단기 일자리 확대 지원
 - 민간기관: 전문적 인력 지원, 보급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증대

장려상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초보 부모들은 육아 중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몰라 어려움 많음.
- 아이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에 여러 어려움을 울음이나 떼를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초보 부모에게 그러한 시그널을 해석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사례를 알 수 없어 육아에 어려움을 겪음.
-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 350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홍보가 덜 되어있고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돌봄공동체 데이터나 이용후기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활용하여 기존에 육아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한 내용을 빅데이터화 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백과사전식 정보제공 또는 직접 1:1 육아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게 연계해주는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지원 대상

- 지역 내 육아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에 출산을 앞두고거나 출산 후 정보를 얻고 싶은 부모
 - 공동육아나눔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데이터를 활용한 <육아 백과사전 알집 신설>
 - 육아백과사전 알집에는 육아·아동 전문가가 다양한 사례에 대비한 육아 스킬 정보를 업로드 시키고 이용자는 검색을 통해 바로 육아문제에 해답을 바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육아돌봄공동체를 이용하고 있거나 육아를 하며 즉각적 피드백을 원하는 부모
 - 본인 거주지역 공동육아 나눔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궁금해요! 대화방>을 개설,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다른 육아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방을 통해 어려움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 활성화

▲ 사업의 지원 내용

- 공동육아 나눔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을 통과하면 궁금해요 대화방과 알집 백과사전 사용가능
 - 궁금해요 게시판을 통해서 국가운영 육아 혜택이나 정보 습득
 - 육아 관련 궁금증을 다른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
- 육아 알집 백과사전을 만들어 초보 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검색하면 해당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백과사전 답변란에 이용자들도 답변을 기재할 수 있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구현

▲ 사업의 차별성

- 이미 구축되어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한 한단계 발전시킨 어플리케이션 개발
 - 지역 내 있는 맘모임 등 sns채널처럼 공동 육아나눔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인터넷과 여러 웹 환경에 능숙한 요즘 부모들에게 적절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
- 육아부담은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작용 되는데 정보 제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 초보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적고 경험이 없다 보니 실수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다양한 방식의 소통창구 운영과 전문가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임.

▲ 사업의 기대 효과

-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해소해 줌.

장려상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난임에 대한 보험으로 난자 보관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 분당차병원 난임센터가 출산 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난자보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 중 7명이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여성 중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비율은 69.8%(558명)로 높게 나타남.
 - 난자 보관에 대한 이유는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지만 난임, 노산 등에 대비해' 57.4 % (394명)와 '일단 건강한 난자를 보관해 놓고 싶어서' 32.7 % (224명)라는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유가 다수였음.
 - 실제 여성의 가임 능력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의 난자 동결 여성은 2014년 42명에서 2018년 635명으로 1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헬스조선 뉴스(2020.08.14.). 늦은 결혼 新트렌드... 미혼여성 10명 중 7명 '난자 보관' 원해]
- 이렇듯 미혼여성의 난자 보관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고 볼 수 있음.
 - 난자 보관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당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받는 사람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함.

- 기혼 여성의 경우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 동결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미혼 여성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즉, 미혼 여성의 난자 보관을 위한 시술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태임.
[출처 : 연합뉴스(2021.10.24.). 난자 냉동하는 여성 늘었지만...지원은 '0']
- 한국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난임률은 13.2%이며 이는 미국 6.7%, 영국 8.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난임 발생과 초산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초산연령이 31.2세로 비교적 높은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면 난임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 미혼 여성의 난자 보관 시술은 난임 해결과 현 한국의 출생률 저하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임.
- 난임, 노산 등에 대비해 여성들의 난자 동결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사업의 지원 대상

- 임신, 출산에 대한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20~40대 미혼 여성
 - 난소 기능 검사를 통해 추후 임신, 출산에 있어 난자 동결 시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20~40대 여성으로 설정 가능

▶ 사업의 지원 내용

- 난자 동결 시술 및 난자 보존 비용 지원
 - 난자동결 시술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배란 유도 주사비용도 모두 비급여임.
 -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및 난자 보존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
-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 개선
 -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난자 보관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출처 : 매일경제(2022.05.31.). "난자 냉동하려면 미혼 사실 증명하세요"]

-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등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 난자 채취 시 수술 전 준비 과정 및 마취 회복 시간 등 총 3~4시간 정도 소요
 - 시술 이후에도 출혈과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술 당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 마련 등 고려

■ 사업의 차별성

- (사회적 욕구 사각지대 해소) 기혼 부부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탈피하여 '욕구 중심' 정책 지원 체계 마련
 - 기존 난자 보존은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다만, 최근 미혼 추세가 심화되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자 동결에 대한 미혼 여성의 난자 보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 필요
- 난임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젊었을 때 미리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을 보존하는 것은 미혼 사회의 난임 문제와 이에 따른 출생률 저하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사업의 기대 효과

- 난임에 대한 선제적 예방
 -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률이 급격히 증가함. [출처 : 아시아경제(2018.02.06.). "나이 먹는 난자, 난임률도 높아져"]
 -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을 보존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높은 난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 난임에 대한 선제적 예방으로 난임으로 인한 저출생 예방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의 지침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현 정책에서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모유 수유 지원 정책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 사업의 제안 배경

- 모유수유는 대다수의 산모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임.
 - 산모들의 90%는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를 계획하지만, 60% 정도는 중도 포기해 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은 편임('15년 자료 기준).
 -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후 2개월까지는 56.7%, 4개월까지는 50%, 12개월까지는 2%로 개월수가 경과함에 따라 모유수유율이 낮아짐('15년 자료 기준).
 - 특히, 한국의 경우 완전 모유수유율은 18.3%로 국제평균수준인 38%의 절반 수준임.
 - 낮은 모유수유율의 원인 중 하나는 모유수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교육과 아이의 젓거부 등 수유 중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러한 모유수유의 어려움에도 모유수유 지원 정책이 부족함.
 - 실제로 산모들 대부분이 친정어머니와 같이 가까운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여 모유수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교육기회가 부족하고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제로 대다수의 산모가 모유수유 초기에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모유 수유 중 겪는 신체적 어려움(가슴 통증 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설 기관에 고가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 따라서 체계적인 모유수유 지원 정책을 통해 완모비율을 높이고 산모들의 심신 건강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의 지원 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및 가족
 -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출산을 계획 중인 임산부 및 가족
- 모유수유 중인 산모 및 가족
 - 현재 모유수유 중에 있거나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산모 및 가족

▶ 사업의 지원 내용

- 임산부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사전교육 및 상담기회 제공
 - 임산부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교육 제공
 - 출산 후 산모들이 머무르는 병원, 조리원 등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 제공
 - 1회성이 아닌 1:1 상담원 지정 등을 통해 병원 및 조리원 퇴소 이후에도 모유수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모유수유 중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공
 - 저렴한 비용으로 가슴 마사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모유수유 지원센터설립을 통해 산모들이 모유수유 중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제공
 - 센터설립이 어려울 시, 모유 수유 전문가의 주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들이 모유수유 중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제공
 - 병원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무료 가슴 진료 제공(필요시 추가 진료 지원) 및 심리 상담 센터 등을 통해 모유수유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물품 지원 확대

- 현재 모든 산모들에 일괄적으로 한달만 대여가능한 유축기를 산모들의 수유 계획 및 현 상태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 연장으로 확대 지원
- 모유수유 사전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모유수유에 필요한 물품(수유쿠션, 수유패드, 유두 보호기 등)무상 제공

■ 사업의 차별성

- 기존 아이중심의 임신출산 정책에서 산모중심의 출산정책으로 다변화
 - 산모의 심신 건강은 아이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유수유 지원을 통해 산모들이 아이 양육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
-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설정으로 사업의 효과 극대화
 - 기존의 일반화 된 임신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모유수유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임신부 또는 모유수유 중인 산모라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설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해결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 증대
 - 기존의 선문제 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산모들 대부분이 흔히 겪는 예측가능한 문제를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

■ 사업의 기대 효과

- 임신부·산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문제 상황 사전 대처
 - 모유수유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초기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모유 수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음.
- 모유수유 지원정책으로 완모의 비율을 높이고 단유로 인한 부작용 해소
 - 모유수유 중인 산모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젖양 부족, 가슴 통증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 하여 완모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통해 단유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죄책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음.
- 산모들 대부분이 겪는 모유 수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모 및 아이의 심신 건강 증진

- 모유수유로 인한 불필요한 심리적 죄책감 및 신체적 이상은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따라서 모유수유 문제를 해결하면 산모의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산모의 영향을 받는 아이에게도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 등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시행기관

-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등)
 - 모유수유를 위한 각종 물리적·심리적지원(병원비 지원, 심리 및 물리적 치료 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내 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본 정책 이행에 실제 참여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내 총괄부처가 필요함.
 - 모유수유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내 총괄부처에서 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기관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함.

장려상

‘양육은 산모의 쉼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정책영역 | 임신·출산지원

▣ 사업의 제안 배경

-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등이 일회성으로 지원되고 있음.
- 건강한 출산문화는 건강한 양육을 위한 기초 환경임.
-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 됨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모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부모교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부모교육과 출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출산 장려금 수령자들은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 사용 목적을 개인적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참고:서상윤(2017),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산후조리원 이용, 의료경영학연구 2017.11(1), p37-45.」
- 가정의 소득형편에 따라 산모의 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음.
(육아용품, 산후조리사 도우미 추가 인건비 지출 등)
- 한 부모 산모의 경우 그 배경이 다양함. 특히 10대, 20대의 경우 정신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출산 후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없음.

- 출산 후 신체적 회복을 위한 헬스케어(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지원을 통해 몸(신체) 건강 챙김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원-헬스케어 -부모교육’ 참여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처음 부모가 되는 경우 올바른 양육태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쉽고 건강 챙김 바우처 제공을 조건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다양한 이유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참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통해 산모가 출산 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 사업의 지원 대상

- 아기를 출산한 다양한 유형(일반가정, 한 부모)의 산모

▶ 사업의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바우처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최소 1주일) 바우처를 제공함.
 - 산후조리후 헬스케어 바우처 지급
 - 산모 취향에 따라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이용권을 제공함.
(바우처 지원금에 따라 일정 기간 운동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이용(아기 돌봄)하면서 헬스케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건강한 몸과 마음 챙김으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정보통신과 사회변화에 따라 양육을 인터넷 검색과 각 지역의 맘카페에서 배우고 있음.
 - 양육은 영아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영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따라서 공식적인 육아관련기관(육아정책연구소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함.

-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됨을 알게 해야 함.

■ 사업의 차별성

- 무조건적인 지원금이 아닌 건강한 사회환경 측면에서 '부모교육 참여'를 전제로 함.
- 부모교육 - 부모 됨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산모의 쉼 권리(마음 챙김) + 건강회복 권리(몸 챙김)
 -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됨은 양육자의 최우선적 의무이고 과제임.
-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지자체(지역사회)-국가의 노력이 필요함.

■ 사업의 기대 효과

- 출산 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음.
 - 산후 우울증 예방
 - 신생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
- 출산 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지원금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모도 건강한 몸과 마음 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산모는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산모의 건강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을 인식 할 수 있음.
-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부모 됨의 의미를 알 수 있음.

■ 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2021-2022년
정책제안공모전
수상작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연락처 02) 398-7700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